



제목	Ninety-Nine Names of the Beloved: Intimations of the Beauty and Power of the Divine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weet Lady Press
발행일	2017. 11. 16.
저자	Camille H. A. Helminski
출판도시	Louisville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0998125824

내용 요약

이 책의 저자 헬민스키는 대문자 연인(Beloved)으로 표현되는 신의 이름을 99개 소개한다. 신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절대신 내지 유일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된 수많은 신적인 속성을 대변한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속성은 신의 완전무결함에 의해 완성되는데, 이것이 불완전한 수 99개와 유일신이 더해진 숫자 100 사이에 놓여 있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고 메울 수 없는 틈이다. 그래서 지상의 연인이 천상의 연인과 결합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승 운동을 하는 것이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99개인 것은 나머지 하나인 신의 이름으로 그 간격을 좁히고 틈을 채워야 한다는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불완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완전함을 향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는 이슬람의 전통에서는 물론 인간의 삶 속에서 고귀하게 간직하고 실천해야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99개 골라 '신의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연민', '자비', '주권', '영광', '순수', '평화', '믿음', '창조주', '용서하는 자', '사랑하는 자', '심판', '보호하는 자', '진리' 등이 99개의 이름에 포함되는데, 이 모든 이름들은 인간이 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불러야 하고, 따라야 하며, 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치들을 신의 이름으로 부를 때, 우리는 신의 관대함과 이웃에 대한 친절함, 우리 자신의 성장 등을 허락받는데, 이것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스스로 소중히 여기고 타인을 향해 이러한 가치를 먼저 실천할 때, 다시 말해 지상에서의 연인과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신과의 연인 관계가 성립하며 지상에서의 결합이 천상에서의 합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신의 이름을 빌어 비유적으로 설명한다.